

총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 및 성역 40주년

바른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 다짐 ... 제직 임직도



총회장 진등용 목사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 및 성역 40주년 기념 제직 임직 예배가 지난 20일(월)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청운로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에서 드려져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애 등 혼탁한 기독교계를 개혁시키고 온전히 바른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성경봉독, 성가대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회 장조용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갈 1:10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해 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온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 택하여 세워 주신 제직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헌금기도, 진선미 집사의 찬양 순으로 감사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순서로 이어졌다.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축하순서는 진실로 집사의 축가,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격려사, 국회의원 이명수 새소망교회 성도의 축사,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의 축사,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축사, 증경총회장 이창 목사의 축사(남송의 축하시간이 계속되었으며 축하패증정 시간에는 미국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정영호 목사와 기독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 민족복음화운동 총재 이태희 목사, 기독교지도자 협회 대표 고시영 목사, 연세대연합신대학원 총동문회장 배진구 목사의 취임축하패 증정 순서를 갖고 진등용 목사의 성역 40년과 교단 총회장 취임을 마



설교 정석위원장 조용목 목사



격려사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대표기도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



축도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



축사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축사 국회의원 이명수



2부 사회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헌금기도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



축사 백석직전총회장 정영근 목사



성경봉독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



사회 총무 김병목 목사



3부 사회 총서지명회 차홍식 목사



음을 다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제직임직예배는 교단 총서지명회장 차홍식 목사의 사회, 담임 진등용 목사의 집례로 문병철, 윤주연 안수집사, 분순심 권사의 임직식이 거행되어 진등용 목사의 임직자소개, 서약, 안수위원의 안수, 공포, 안수증서수여, 임직자가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교단 증경총회장 배진구 목사의 권면, 진등용 목사의 인사말씀, 문병철 안수집사의 광고, 교단 증

경총회장 최광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제64차 총회 총회장에 취임한 진등용 목사는 한 세대, 연세대연합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로 헌신하고 있으며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교계연합사역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헌신하고 있다.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취임예배 및 성역 40주년 기념예배에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당부하는 격려인줄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형편상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니 해람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총회장 진등용 목사

여교역자국 수련회·실행위·전국신학생 수련회 등 점검

64차 총회 제3회 임원회

교단 64차 총회 제3회 임원회가 지난 20일(월) 오후 3시 아산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장 진등용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총무보고로 이어졌다.

총무 김병목 목사는 교단업무보고 사항으로 전국 사모회 정기월례회, 제64차 총회 제1회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도 상반기 목대원 계절학기 등의 총무보고가 있었다.

계속해서 재무 김중연 목사의 회계보고사항으로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및 수입보고, 회계 김영준 목사의 지출보고 사항 후 결의 및 안건으로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등의 사항이 결의되었으

며, 교회주소변경, 교회명칭변경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준비 중인 사안으로 2015 종교동부 비전캠프,

2015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 2015 여교역자국수련회, 제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 일정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을
스피네

‘경청(傾聽)해야 할 경고(警告)’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샀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유다서 1:11)

성경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많은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들이 왜, 어떻게 타락하였는가를 알아봄으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하였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로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입고 화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인류 구속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속죄제사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이 속죄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가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심히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가 있으나 구원의 길은 단 하나 뿐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사탄은 세상의 소위 고상한 사상, 철학, 종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합니다. 이 길이 곧 가인이 좇아간 길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타락케 하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의 소리를 경계하고 물리쳐라라는 경고를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샀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군대 등과 싸워 이기며 드디어 요단 강 근처 모압 땅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를 본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자 모압 왕 발람은 이방선지자 발람을 시켜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계락을 꾸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

했지만 발람 왕이 더 많은 재물과 지위를 줄 것을 제사하자 탐심이 마음이 흔들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다른 계책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신전으로 초청하여 접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상숭배에 연루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적중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공격하여 보복하였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세상의 지위와 명성과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불의의 길’을 택하고 ‘어그러진 길’을 간 것입니다.

셋째로,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하였습니까.

고라는 모세와 이룬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여 당을 짓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판결하시고 형벌하셨습니다. 고라의 패역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룬에게 위임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룬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불의를 행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타락입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 고라의 패역을 좇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타락 예방을 위한 경고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청중하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며, 항상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대원 2015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열려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원내 사진)은 지난 13일(월) 낮12시 30분 2015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5일간의 계절학기 강좌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용영 목사(목대원 교학과장)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갈 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사명감을 불태우는 주의 종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계절학기 참가자들을 축복했다.

사회자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곧바로 조용목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 목사는 특강1 ‘목회와 설교’, 특강2 ‘목회원칙’이란 제목의 특

강을 통해 계절학기 참가자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 주었다.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계속된 계절학기 강좌는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복음주의 신학연구’,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성령론’, 본 대학원 교수 김종호 목사의 ‘현대신학’, 최병진 목사의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신학연구’, 이성석 목사의 ‘대전지서 연구’, 이원용 목사의 ‘종말론’ 등의 강좌가 집중적으로 이어져 열과 성으로 준비된 강좌가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었으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순절신앙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 전수받았다.

수련회 뜨거운 관심 속에 여름, 겨울 계절학기 이어온 이 강좌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 속에 주요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목회일선에서 오순절 성령충만운동의 확산을 위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예금주 임종달

동성애 결사반대 특별기도회 개최

지도자협, “합법화 하려는 정치권 움직임 주시하겠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전7시 여천 도회관에서 동성애 반대 특별기도회를 갖고 동성애를 정당화 할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어떠한 배려나 보장도 결사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지도자협의회는 이날 동성애 결사반대 성명서도 채택하고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로 포장된 동성애 퀴어축제,의 장소를 허가해준 박원순 시장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도전이며, 서울시민을 우물쭈문 월권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진리애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 동성혼은 인류의 적으로 미명하 척결하여야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1부 동성애 결사반대 특별기도회는 김재송 목사의 사회로 김동권 목사의 '동성애자의 죄악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정치권의 안정과 위정자', '죄악된 동성애 퇴치와 근절', '박원



순 시장 동성애 오피를 깨닫기 위하여', '사탄에 포로된 동성애 해방을 위하여' 기도문을 인도한 후 김기원 목사의 합심기도와 유희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동성애 추방을 위한 대책과 제언이 제시됐다. 이날참석자들은동성애 약법제지를위해가

능한한 모든수단을 동원해이를 저지하기로한을 모으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인권헌장 안에 있는독소조항 폐지를 위해적극힘쓰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퀴어축제 장소를 하락한 박원순 시장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의 직무정지기처분을 위한 주민소환제도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5 서울-평양 국제대회 열린다”

고르바초프 러시아초대 대통령 등 해외 거물 참가 확정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광복(복旦)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2015국제평화대회에 고르바초프 러시아 초대 대통령, 무라야마 도이비치 전 일본총리,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메테프 러시아 현 총리,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평화기도회 지도자 등의 참석이 확정됐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지난9일(목) 엠버서더서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평화대회’경과보고,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대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송기학 이사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민족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평화의 종 타 종식은 국제적인 평화대회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평화의 상징적



인 주요인사들을 특별 초청한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서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평양은 북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으로 서울대회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 북측과 교섭하여 마지막까지 평화행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이사장은 “본 행사가 개막되기 직전에, 독일통일의 주역인 본네베르거 목사가 이끄는 국제재전거 평화행진단이 중심이 된 DMZ행

단 국제재전거 대행진”을 진행하고, 본 행사가 개막되는 날 오전 10시 정각에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현상인DMZ 공동경비구역에서고르바초프를 비롯한주요인사들이 DMZ를 완주하고 도착한 보네베르거 일행을 맞이한 후, 모두가 함께 공동경비구역에 진입 될 예정인 체계 평화의 종 기념비 착공식과 더불어 ‘2015 국제평화대회’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2015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 서울 행사는 10월 9일부터 13일, 평양은 10월 12일부터 13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부총회장에 이성희·문원순 목사 임후보

공명선거 강조

예장 통합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임후보자로 이성희 목사(서울노회 연동교회)와 문원순 목사(서울북노회 승리교회, 이상 기호순)가 나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후보자들은 지난 14일(목) 오전 11시 후보신청서와 증명서, 류 및 공탁금을 제출하고 등록을 마치고 기호추천 결과 이성희 목사가 1번, 문원순 목사가

2번을 배정받았다. 이성희 목사는 깨끗한 선거운동, 공정한 선거와 정책 대결을 강조했고, 문원순 목사는 깨끗한 선거와 교회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는 등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한편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는 경북지역 7월 21일 오후 1시 대동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8월6일 오후 1시에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수도권지역 소견발표회를 갖는다.



이성희 목사(왼쪽)와 문원순 목사(오른쪽)

법학·신학 전문가들 카이캄 법무팀으로 출범

회원교회들의 법률적 고충 해결, 자문과 상담 담당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 법무팀이 새롭게 출범했다.

카이캄은 6월 30일 법무법인 산지의 남윤재·이은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지현의 이재원 변호사를 카이캄 법무팀으로 선임했다. 카이캄은 “업무 확장으로 국내외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소속목사와 교회간의 법무상담 및 소송으로 적절한 업무 조인과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법무적 조인과 상담을 담당할 법률전문가로서 카이캄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법무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김상복)를 졸업했거나 현재 신학 과정을 밟고 있는 법률전문가들로서, 앞으로 카이캄 본부와 회원들에 대한 법률 자문과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카이캄 목회국장대행 김형중 목사는 “모종부의 재정비리와 관련해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해 왔고,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가 있어왔기에 법무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이제 법무팀 출범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앞으로 카이캄 본부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고

충들을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장 신상우 목사는 “우리 카이캄은 교단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강점도 얼마든지 있다. 이번 법무팀 출범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며 “법무팀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수많은 교회 분쟁 사례들을 다뤄온 베테랑들이다. 더구나 법학뿐만 아니라 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종교적 법리와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장기기증운동본부와 MOU

활발한 각막이식 수술 기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9일(목), 한림대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상수)과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날 협약식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랑의장기기증운

동본부의 박진택 목사 및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의 이상수 병원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림대춘천성심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각막기증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각막이식 수술을 위한 각막저출을 돕기로 약속

했다. 이를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을 나누겠다는 기증인들의 숭고한 나눔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택 목사는 “그간에도 조지원 김해 등 지역, 시간을 불분하고 각막이식을 위해 애써주신 춘천성심병원의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교연, 이단문제는 결코 정치적 타협 안돼

각 교단 이단문제 존중

한기총은 지난 9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이단성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광복70주년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한국교회 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결렬들이 되는 이단문제만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고 질타하고, 연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이단문제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한기총에 대해 “이단을 비호하고 감싸는 기관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서 한국교회는 과거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었다.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보석처럼 빛났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하나님에 부여하신 넘치는 은혜를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을 증언하는 데 바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지만과 불순종의 결과이다. 우리는 서로의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단죄함으로써 교회에 다름과 분열을 일으킨 죄과를 통렬히 회개해야 한다.

수년 전 한국교회는 연합기관의 분열로 인해 또다시 찢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그것은 이유를 불분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교회는 동성에 확산 저지와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편향 시정, 이슬람 확산 저지 등 대사회적인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되기를 모색해 왔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결렬들이 되는 모든 문제는 서로가 기독교권을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면 얼마

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단문제만은 그럴 수 없다. 이단문제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이단의 규정과 해제는 각 교단의 고유한 권한이며, 연합기관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합기관은 회원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각 교단간의 조화와 협력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만일 연합기관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연합기관이 오히려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분열의 단초를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열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단문제만큼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으며, 각 교단이 신학적인 연구 심의를 거쳐 규정한 이단을 비호하고 감싸는 기관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예장대신 전장연, 신임회장에 김석주 장로 추대

화합과 연합으로 새롭게 출발

예장대신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하 전장연)는 지난 4일 신반포중앙교회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김석주 장로

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신임회장 김석주 장로는 “이번 회기에 교단의 통합의 과제로 발생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합하고 연합하자’는 주제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2-3)는 주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기에 힘쓰며 지금까지 이어온 전장연의 좋은 과업들은 계승 발전시키고 취약하고 미비한 점들은 보완하여 전장연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무처리에 앞서 가진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이우식 장로의 기도, 국가와 민족(한반도)장로연합회장 유지용 장로), 교단발전(서울동노회장로연합회장 최승호 장로), 전



카자흐스탄에 복음 전파 - 광성교회 단기선교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양육과 훈련 집중

광성교회가 지난 6~13일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네티저럼 미국과 캐나다팀과 협력해 이뤄진 이번 단기선교에는 광성교회 성도 35명이 참여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순수 복음을 전파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총 26개 지역을 대상으로 19개 순으로 편성돼 진행됐다. 이중 광성교회는 12개 지역을 담당해 9개 순을 파송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활동함으로 선교의 지력을 입증했다.

특히 광성교회 단기선교팀은 2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직종이 아닌 순수 복음을 전하여 교회 양육과 훈련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주일 동안의 선교활동을 위해 광성교회는 4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여 언어교육, 선교노하우 전수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카자흐스탄은 2011년 10월에 통과된 종교법으로 인해 3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30명 이상이 모여야 조직교회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30명 이상의 모임이 발각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가정교회가 일반화된 사회적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단기선교 또한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미 조직된 교회들을 방문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정교회들을 양육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도 현지에서 등록교회 2곳과 평신도사역자 중심 가정교회 4곳 등

을 방문하여 사역이 진행됐다.

다행인 점은 카자흐스탄 현지가 한류 열풍으로 다른 서방 국가보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광성교회 단기선교팀이 단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단기선교를 인솔한 우종구 목사는 “종교개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년 동안 들어갔던 지역이 이제는 서서히 사역지로 세워지는 등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세우고, 등록되지 못한 가정교회는 등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32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목사 부흥성역 40주년 감사예배

한국교회 재 부흥에 기여하는 것이 소원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전력해 온 이태희 목사가 성역 40주년을 맞았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지난 4일(토) 오후 성복교회에서 부흥사 선후배 및 동료들과 교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태희 목사의 성역 4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이태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40년 동안 100여 개국에 집회를 다니고 사역하면서 환난·고통·역경·기쁨이 많았다. 많은 목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부흥사 세계에 서,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사역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

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영남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사회로, 이길자 목사(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박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고문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축하 시간은 이원호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괄부총재)의 사회로, 오관석(하늘비전교회)·유순임(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정춘(영대교회)·인요한(세브란스병원) 목사(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축사, 권태원 목사(군포제일교회)의 축사, 윤희기 목사(예음교회)가 축가를 불러 성역을 축하했다.

교단 부흥사회 여름세미나 열려

“교단발전과 교회부흥에 전심전력” 다짐

교단 부흥사회

교단 부흥사회 여름 세미나가 지난 16일 (목) 은혜와진리교회 신앙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오찬 후에 아가페 성전에서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부흥사회 고문 임종달 목사의 기도, 조용목 목사의 특강 순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조 목사는 특강에서 교단의 존재 이유와 교단의 역사 및 정체성, 부흥사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 말씀하며 부흥사들을 격려했다.

조 목사는 사비비한 단체의 교회 침투와 이단의 준동에 함께 적극 대처하고, 필요한 목회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교단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단의 구성 요소로 특히 소속한 교회 목회자들의



교리와 윤리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우리 교단은 100% 성경에 부합한 교리, 성지자다운 윤리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목 목사는 끝으로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탐심 때문에 마음이 강박에 들어 불의와 불법을 행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교단 내의 악습과 폐단을 개혁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하면

서 교회부흥과 복음전파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흥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단과 부흥사회를 위해’ 각자 사명 감당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8층 세미나실에서 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임원회가 열려 부흥사회와 교단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2015년도 목사안수, 임직예배 드려

‘착하고 충성된 복음사역자로서의 삶’ 다짐

은진지방회



정기총회 이후 각 지방회별로 2015년도 목사 임직식이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진지방회 목사 임직예배가 지난 14일(토) 안양성전에서 가족과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드려졌다.

은진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김영원 목사의 기도, 김피터 목사의 성경봉



독, 남침교역자 중장단의 찬양, 조용목 목사의 설교와 안수식 순서로 예배가 드려져 배윤호, 손석준 전도사가 목사로 임직되고 전생애를 주께 드려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요 10: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사역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주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보여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람으로 회생하고 헌신하므로 하나님께 칭찬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임직자 서약에 이어 목사 안수식이 가족

과 교역자들의 합심기도 속에 엄숙하게 거행된 후, 조용목 목사의 임직공포, 증서와 패를 수여하며 신임 목사들과 가족들을 축복했다. 이날 임직예배에는 교단 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예배 후에는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WCC 반대운동연대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WCC와 동성애, 로마기독교의 신앙과 직제 일치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경철 교수(고신대)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경철 교수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WCC와 동성애 관련 반대 운동에 몰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은혜와진리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월례회, 여름수련회·성지순례 등 안건 논의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 9일(목) 오전 11시 주사랑순복음교회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사회,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의 기도, 주사랑순복음교회 담임 신병설 목사가 ‘아버지의 사랑’(눅 15:11-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설교에서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본문을 근거로 상세히 말하면서 그 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전했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



(부강순복음교회)의 인도 하에 지방회 부서별 각종 보고를 받고,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지방회 유·청소년 여름수련회와 내년 3월말에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그

리고 교단 목회자 초청 성령캠프 개최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회장의 기도로 월례회의를 마치고, 주사랑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북 지역 증경회장 및 현 임원 목회자 간담회

전남·북 지방회

본 교단 산하 전·남북지역 5개 지방회는 지난 21일(화) 오전 11시에 전주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임종달 목사)에서 전남·북지역 지방회 증경회장 및 현 임원 목회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광주지방회장 김영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호남지방회장 유영욱 목사의 대표기도, 전라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갈 1:7-10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은 것같이 나를 본 받으라고 할수 있을 만큼 본이되는 성직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주장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역설했다.

이어 전북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의 광고, 전라지방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간담회는 전북지방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친목과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되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는 현재 총회의 사정과 현안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의 호응과 함께 총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북 지방회 소속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어 전북서지방회장고 현진 목사의 식사기도 후 전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식사로 서로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좋은나무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좋은나무의 열매있는 지역교회로 성장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9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좋은나무교회(담임 유관영 목사) 창립예배 및 담임목사 유관영 목사의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상순 목사(순복음성광교회)의 사회, 서기 김희수 목사(은혜사랑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임경애 목사(성령암곡교회)의 특송,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는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의 창립선교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의 축사, 순복음좋은나무교회 유관영 목사의 취임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순창순복음교



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담임 유관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예배에 참석해 주신 전후배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창립되기까지 이름 없이 몰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하고 “순복음좋은나무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창립예배 후 참석자들은 순복음좋은나무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월례회, 교단과 회원 교회 위해 통성기도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3일(월) 순복음은혜와사랑교회(담임 강진홍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정미자 목사의 기도, 김남순 목사의 하 3:1-10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가 ‘원고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의 밭을 잊어버리지 말라.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 판에 새기라.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말씀을 선포한 후 교단과 지방회 회원 교회 위해 통성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



으며, 김효신 목사의 헌금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의는 회장 김기인 목사 진행, 회원점명, 제무보고와 회계보고를 받은 후 안전저리에 들어가 김효신 목사가 시무하

는 교회의 명칭과 주소변경과 이전예배의 건을 처리하고, 7월 20일 열린 총회장 취임예배의 적극적인 참석을 결의했다. 이후 회원들은 찬양교회에 둘러 합심기도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포토뉴스



안산시흥지방회(회장 김영학 목사) 회원들은 지난 20일(월) 아산시 새소망교회에서 드려진 총회장 전동용 목사 취임 감사예배에 참석하여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총회장 전동용 목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회원들은 인근 공주 무령왕릉을 둘러보며 단합된 모습으로 복된 시간을 함께 했다. 안산시흥지방회는 미국AG한국총회 성령캠프에도 8개 교회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 생명의 말씀 ■



정 해 단 목사

· 김포지방회장
· 김포샘물교회

바울이 기독교 이전엔 역사에 가장 뛰어난 사도요 전도자이며 복음 선포자이고 목회자였음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2장을 통해 제시된 '복음과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2:5)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음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엿보고 종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

복음과 바울의 신앙

(갈 2:1-21)

함이었습니 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 시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교회에도 비진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 다. 단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다른 복음은 없습니 다.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는 사단이 뿌려둔 베도의 씨앗입니다. 그들의 수장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근본주의자가 가지는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 했습니다. 2014.6.12 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창조, 기독교, 구원론, 종말론을 다 무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 제시된 복음에 진정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누군지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

니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2:16)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 외식함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비록 대선배요 사도인 베드로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악화 훼손하는 여하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

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한 길일뿐'이라는 주장에 많은 이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절절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 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 강했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이 기독교 이전엔 역사에도 도히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지적 없이 이삭 앞에 선 야곱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에서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오직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즉 예수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 다. '못 박혔나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로 연결시켰습니 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나의 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바

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 받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형틀 그 절망의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던 그때의 성경 기록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예수님의 단발미적 절규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 다. 예수님께서서는 한시도 하나님과 단절의 순간이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건 땀줄이 끊어진 타이와 방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땀줄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도 못 박혔습니 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나의 못 박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신앙의 견고한 요새가 내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살이있는 제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사도들과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으로, 자신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 다. 우리 삶 속에도 바울의 삶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도준직) 중 동성애와 관련된 8장을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심각한 질병에 관한 것을 잘못 유도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은폐는 조직적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가 기관이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존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동성애를 보호하는 동성에 단체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깊은 관련성을 정부 기관이 은폐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대한민국이 전체 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도 아닌데,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무한 도전이 된다.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보고를 근거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사회적 가치관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일에 누구도 방해나 방조, 그리고 방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기자협회와 체결한 <인권보

동 정

나사렛대, 정립회관과 산학협력



나사렛대(총장 신민규)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와 스포츠의 메카인 정립회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턴십과 실습, 자원봉사 등 나사렛대 학생들의 현장 참여와 연구지원, 연구자료, 실습기재제 공동 활용, 위탁교육, 협동강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연 새 대표회장 한기동 감독



한국성결교연합회(이하 한성연)가 최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제6회 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한기동 대한기독교교나사렛교회 감독을 추대했다. 한 대표회장은 "성결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된 한성연이 단순히 천교만을 강조하기 보다 성결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신대학교 관련 입장 발표



교경협(대표회장 이건영 목사)은 지난 21일 충신대학교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교경협은 "전국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며, 제반 문제가 총회 결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고, 새로운 제단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충신대학교가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경 바르게 배우기 운동' 전개



한국미디어선교회(이사장 립형천 목사) 부설 바이블아카데미는 최전 전국 18곳에 바이블아카데미 지역 캠퍼스를 설립하고 성경강해 동영상을 통한 '성경 바르게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국내 신학자와 목회자 72명이 강의한 신학강좌 193편과 신구약 강해 213편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에이즈 감염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

에이즈를 예방하는 길이 되며, 개인의 불행을 막는 것

최근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다 에이즈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에이즈의 주 감염 원인이 무엇이라는 논란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동성애와 에이즈는 분명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성에 단체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무슨 이유인지, 에이즈

감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 단체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질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동성애자들의 자기 방어를 위해 본능적으로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문제는 정치적·이념적, 혹은 이익집단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근자에 모 언론이 동성애자 인권 단체의 보고서에서도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적절한 공개라고 생각한 다. 본래 성의 문제는 범죄에 악용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관한 선전'은 미국 및 일부의 구리와 국가들을 따아서, 사회적 통념과 가치와 질서를 도외시한 채,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동성에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이며,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사회적 감증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적으로 분

제가 된다면, 그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이 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HIV/AIDS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에 선전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악역은 언론들로 하여금, 동성애의 작나라한 실태, 동성애와 특정 질병과의 관계의 보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자협회와 체결한 <인권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 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1부, 설교자용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동웅
총 무 목사 김병목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목양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아름다운 기억을 갖게 하라

‘메리’는 전형적인 과도 성취자였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바로 경영학을 선택하는 곳에서 MBA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뉴욕에 있는 일류 경영 컨설팅 회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유명한 회사들을 옮겨 다니며 승진했다.

30세가 되기 전에 뉴욕시의 큰 출판사의 부사장이 되었다. 몇 년 후 이사회로부터 같은 법인 하에서 새로운 출판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장엄한 지 5년이 되자 메리의 벤처기업에 뭔가 잘못된 점이 들어났다.

전도유망한 구상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회사는 내적으로 활기가 없어 보였다. 메리가 아무리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도 뛰어난 직원들은 몇 달 안에 어긋났어 떠나갔고, 어렵게 구한 저자들은 계약사항을 완료한 뒤에는 다른 출판사로 떠나버렸으며, 에이전트들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고객이 메리의 회사와 더 이상 계약을 맺지 못하게 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메리에게 있었다. 뉴욕에 있는 다른 큰 출판사들은 논란을 일으키는 일원들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기행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망한 이사회는 메리가 만들어 낸 부서에서 그녀를 해고시켰다. 그것은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지 만 6년이 되기한 주전이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동요시킨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녀의 동료들과 계약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도둑질, 구걸, 상해, 사기 등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녀가 최고의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선량한 직원들은 그녀와 함께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메리’의 용병’으로 불리고 싶겠는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강하고 노련한 전문가들조차도 메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피했다. 그녀가 출간한 많은 소설 속에서 조롱당했던 무지비한 관행들이 그녀를 한 기업의 리더 자리에서 몰려나게 했다.(출처 : George Bama 지음, 김주성 옮김, 물 밖의 물고기)

우리의 현실은 어릴 때부터 성공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그래야만 타인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자기중심적인 기억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물론 꿈을 갖고 노력하는 데는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부터 인격함양에 무관심함으로,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무시, 비하, 격렬 등의 의식의 형성으로 더불어 산다는 인식이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원하던 목적이 이르렀다는 순간, 그는 주위 사람들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일에 너무도 쉽게 빠져든다. 이는 자신의 노력이 공익성 보다 보상심리가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혀 타인들에 대한 배려 역시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순간의 성공이 도리어 절망과 비극을 불러 오기도 한다. 또한 자신을 무시한다는 강박증으로 어떠한 이도 자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이웃이며,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은 나의 지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기억이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최초(아려사)의 기억은 어떠한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스펙 중심에 앞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갖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목양/우리교회 음향은?

문형만 장로 // 전 삼지대 원주대 강사, 전 MBC, KBS 프로그래머 겸 리포터, 현 대림음향 사외이사, 크레딧 사운드 이사, 현 낙원선교센터 담당자



무선마이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뮤지컬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이 춤과 여러 동작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뺨에 붙이고 사용하는 피부색 마이크가 관심이 있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까이 무선 마이크의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무선 마이크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는 이 무선 마이크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 특히 부흥회라던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특히 폭 넓게 강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일반 찬양을 한 차원 높여, 연극과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뮤지컬과 같은 프로그램이 일반화되면서 이 무선 마이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무선 마이크의 장점은 일반 유선의 제품과는 달리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선 마이크의 장점은 간단

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이리저리 차이는 유선 마이크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단순한 장원을 넘어 손에 쥐는 핸드 마이크 대신 옷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핀 마이크나 헤드폰처럼 머리에 쓰는 헤드셋 마이크 그리고 요즘 가수들이나 개그맨들이 귀에 걸고 나오는 아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이어마이크(ear mic) 등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립싱크(머리 녹음)를 해놓고 입술 동작을 맞추는 것과 기존 선(line)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표현을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높여 작품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일반 뮤지컬 기획자 및 교회 찬양사역자들은 평가합니다.

예전에 수요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무선 마이크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무선 마이크 구매자 대다수가 교회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통신보안법에 묶여 고성능의 제품은 사용은 물론 이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으며,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위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혼선과 잦은 끊어짐으로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외국이라도 가서 그 쪽 본들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를 보면 성능과 감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지였는데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의 제품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주어졌습니다.

가격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성능의 좋은 제품을 외국제품에 비해 삼분의 일 가격 정도로 살 수 있는 좋은 기기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수입 완제품과 비교해 고장이 날 비율과 애프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선마이크 제품은 기능 면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일대일(1:1)방식으로 본체 하나에 핸드마이크 아니면 핀 마이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과 이 대일(2:1) 방식으로 본체 하나에 핀 마이크와 핸드마이크를 함께 사

온선 칼럼

문천우 목사 //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영혼을 녹여 전장에 수놓다

고전 4:2



예술가들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영감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차르트의 음악적 고향은 비엔나(Wien)였습니다. 광기어린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의 도시는 오베르 쉬르 아즈(Auvers-Sur-Oise)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예술인들이 예술적 고향으로 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통영’입니다. 윤이상, 박경리, 유지진, 김춘수, 전용린 등의 위대한 예술인들과, 한국의 고흐라 불리는 화가 이중섭의 예술적 토양도 통영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 ‘소’는 물론, 그의 유화작품들 대부분이 통영에서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통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예술가들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영이라는 이름은 그리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릿발이 느껴지는 군사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준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충청, 호남, 영남 세 지역의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 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해군은 주변국가로부터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상, ‘국가 방위 총사령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영이 문화, 예술의 도시로 인식되는 것은 당시 전국의 핵심적인 요관들과 가족들이 그곳으로 모였기에 자연스레 그 지역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 까닭입니다.

한 때 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한 국사 최고 영웅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한산도에 머물면서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지

금도 한산도의 29개의 마을 이름이 전부 이순신 장군 관련 이름들이고, 후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위치하게 된 통영 지역에는 지금도 채송당, 총렬사, 세령관 등의 충무공을 기념하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을 영웅적 존재로 만든 계기는 바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한산대첩(閑山大海)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한 획기적 전략으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 선조는 충신인 이순신을 오향하여 백의종군시키십니다. 그리고 후에 잊혀진 전투의 패배로 나라가 절대적 위기에 부딪히자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 때, 이순신에게 주어진 군함은 겨우 12척, 그럼에도 이순신은 회회하지 않습니다. 그 12척으로 진도의 울돌목에서 왜군의 배 300척을 무찌릅니다. 그것이 명량대첩(鳴梁大捷)입니다. 그 결과, 호남의 곡창(穀倉)을 쳐서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한 풍신수길 군대의 길은 막혀버렸고, 왜군들은 한 마디로 굶어죽게 됩니다. 오향과 질투로 이순신을 내쫓았던 선조는 이순신의 사후에 이 같은 시를 썼습니다. “판리장성 무너지니 누구를 의지할꼬, 나라여 복도 없다. 하늘만 아득하네.”

전장의 예술가 이순신의 위대함은 그가 보여준 그림 같은 지략, 혹은 23년 28승의 놀라운 전승전력보다는 그가 국가와 왕에게 바친 ‘흔들림 없는 충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전부를 녹여서 전장에 수놓았던 이순신! 그는 진정한 화가였고, 그의 도시 통영 또한 예술의 도시가 맞습니다.

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향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체 하나에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핸드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핀 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고, 핀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핸드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핀 마이크나 핸드마이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대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길래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불화가 생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필요한 것이 핀 마이크라면 그것을 사용하

시다가 나중에 핸드마이크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에 별도의 무선 마이크가 더 필요 하다면, 기기 하나에 두 개 이상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다 채널(2ch, 4ch, 6ch)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기능 성능 및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 및 미리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사용 후기 등을 살펴보는 등 구입하기 전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10)9778-5916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성령론

역사학자 토인베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문명도 같이 갔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07년 장대현교회성령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민족에게만 있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신상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가난과 고난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시 살리리라”(요 6:4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책은 필자 정형기 목사가 신학교 재학중 배운던 교재를 참고하여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성령론(교재)을 정리하여 성경구절만 넣어 발간한 것이다. 가격 5천원 구입문의 010)3449-4000



목사님! 혹 찾으시던 제품이 이것이 아닌가요?

열악한 음향환경을 최상의 소리로 만들어주는 V50 V60 마이크 프리

현재의 음향상태를 더 힘있게! 더 명료하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소리에술의 결정판입니다.



마이크 프리 V60

- 목사님 강대상용 마이크 인풋, 아웃풋 2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한류를 선도하는 K-pop!!

그 뒤에는 세계적인 Credit Sound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방송국, 공연장, 유명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Q-Box 등은 우리가 만들고 세계적인 음향장비와 겨루고 있는 Credit Sound 사의 제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는 낙원선교센터의 요청으로, 열악한 교회 음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redit Sound 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v50과 v60 마이크 프리는, 출시되자마자 목사님들과 독일 바이어들이 극찬한 제품으로, 기능과 성능은 고가로, 가격은 초저가에 형성된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현재의 음향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향상시켜주는 v50과 v60 마이크 프리는 말 그대로 소리에술입니다.



마이크 프리 V50

- 찬양인도자, 찬양사역자, 성가대 마이크용 마이크 인풋, 아웃풋 1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특징!

1 최상의 회로설계를 탑재한 마이크 전용 프리앰프로서 마이크에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설교와 찬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찬양할 때 도움을 주는 음향효과기기(Reverb)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ON/OFF 스위치를 간단히 조작하여 음향엔지니어 없이도 사용자가 버튼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음향효과는 프로가수들도 가장시 활용하며 음정처리를 힘들이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 기기는 이런 음향효과를 누구든 간단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하여 프로에 버금가는 음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상의 Sound를 제공합니다.

Homepage 에 들어오시면 credit sound 제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www.creditsound.co.kr 상담 : 문형만 010-9778-5916 하동희 010-5718-406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8월 1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7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

주제 :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이사야 49 : 15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5년 7월 27일(월) ~ 29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
- 주 제 : “내 이름 아시죠”(사 49:15)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체 교회 중·고등부
- 등 록 비 : 6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선입금(2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6
 - ② 주강욱 목 사 : 010-8338-5095
 - ③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④ 강수용 전도사 : 010-4466-8621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여전교회 담임

대회장



진등용 목사
교단 총회장
세소영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김병목 목사
교단 총무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진행위원장



권용덕 목사
교육국장
철원순복음교회 담임

주강사



신재영 목사
부흥사회장
새김전교회 담임

특별강사



이동진 바리스타

Guest



소울 싱어즈

총진행



조선남 목사
교육국 차장
대림벤엘교회

진행위원



오세준 목사
침종은교회 담임

진행위원



주강욱 목사
대림벤엘교회

진행위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진행위원



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오경진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임수림 전도사(포항인도목교회)
권승철 전도사(남원중앙교회)
이윤규 전도사(남원중앙교회)
최철희 전도사(순복음아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7월 20일(월)~8월 14일(금) 17:00까지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 2015년 7월 20일(월)~8월 14일(금) 17:00까지
- ④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의로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접수방법 :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 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7월 20일(월)~8월 14일(금) 17:00까지
- ② 원서교부처 :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 2015년 7월 20일(월)~8월 14일(금) 17:00까지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 개별통보
- ⑦ 전형료 :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목회자 성령캠프 개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에서는 교단 각 기관이 협력하여 목회자 성령캠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한국의 형제교단인 예수교 대한하나님의성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미국 내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의 활동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 주요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사랑 나눔의 귀한 자리에 형제교단의 회원들을 초청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 24일(목) 3박 4일
- 장 소 : 아름다운 산장(www.sanzang.com)
31601 Highway 330, Running Springs, CA
- 대 상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회자와 사모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지원(숙식, 유니폼 등)
- 접수마감 : 7월 31일(금) 오후 5시까지
- 접 수 처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2)2675 - 5181~3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정영호 목사

총신대 제6대 총장에 김영우 목사 선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 재단이사회에서 결의 - 학교성장 가속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직무대행 송춘현 목사)는 10일 오후 1시 사당동 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운영이사회를 열고, 단독 총장후보인 김영우 목사를 재적이사 102명 출석에 반대 23명, 찬성 79명으로 총신대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영우 총장은 오후 3시 소집된 재단이사회에서 제6대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총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임기는 전임 김자연 총장의 잔여임기로 2017년 12월 16일까지다.

이날 소집된 이사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부 순으

로 진행됐다. 전체 재직 이사 144명 가운데 103명이 출석하여 개최되었다. 운영이사회 구성은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21당회 이상)와 재단이사 및 신대원 총동장회장으로 구성하고, 총장, 총회장은 직무이사이며 투표권이 주어진다.

운영이사회 규칙에 총장을 선임하는 규정에 의하면 1차, 2차, 3차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제4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당선이 확정되는데 1차 투표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법적인 총장선임권을 갖고 있는 재단이사회

에서는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안병환 목사를 지명하고 총장 선임 업무를 처리했다.

총장으로 선출된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군 군목 예편, 명지대학 교회 담임목사와 총청노회 노회장, 기독교신문 주필, 총신대 재단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전공동체 대표이며,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대표이사, 개혁신주의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설립자, 서천읍교회 담임목사, 세계개혁주의연맹 총재로 있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영신학교이므로 두 종류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에 따른 이사회(정수 15명)가 있으며, 교단 내부적으로만 인정되는 운영이사회가 있다. 법적으로는 재단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재단이사회가 총장과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운영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운영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이나 재단이사를 선임할지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단내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나 분쟁이 되면 교육부에서 분쟁사화로 분리되어 학교가 불이익의 처분을 받게되고, 학생 인원 감축 등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게된다.



CTS 기독교TV ‘카카오토리 채널’ 오픈

시청자와 SNS 소통채널 확대 강화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SNS를 통한 시청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어 <CTS 공식 카카오토리>를 지난 6일 오픈하고 소통채널을 다각화했다.

이번에 추가로 오픈되는 카카오토리 채널(https://story.kakao.com/ch/ctstvctstv)은 △CTS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소개 △오늘의 말씀과 찬양 △다양한 간증과 도크 △다양한 신앙 고백, 사연 접수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CTS 카카오토리 채널 오픈과 관련한 이벤

트가 진행되는데 ‘소식받기’ 클릭 후 오픈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채널 오픈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1일 카카오토리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TS 홍보팀 이은지 사원은 “이번 CTS카카오토리 오픈은 기존 운영중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유 공간을 갖게 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홀트 2015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

행정자치부 후원받아 7월15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2015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13일(월)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에서 진행했다.

행정자치부의 후원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7명의 단원이 선발되었다. 이중에는 폴리텍

대학 강서캠퍼스 학생들로 이루어진 기술봉사단도 3명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봉사단을 인솔하기 위해 전기과 교수 1명도 파견된다.

발대식에서 전재윤 단원 외 16명은 활동기간 동안 해당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많은바 임무를 사기를 행

동으로 수행할 것을 전서하였고 캄보디아에서 펼칠 문화공연의일부도 선보였다.

봉사단은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트라피앙 안전지역으로 파견되어 홀트 드림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기술봉사단은 마을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각 가정의 전기시설을 수리 할 예정이다.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회째 이어지고 있다.



한장총, 제7회 장로교의 날 성료

한교단 다체제 추구 등 ‘4대 비전’ 발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이하 한장총)는 지난 7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장로교의 날’ 대회에서 발표한 ‘4대 비전’인 △국민출애굽 대행진 △장로교 정체성 확립 △한교단다체제 추구 △미래의 통일 세대가 될 ‘예머스’(YEMers, Youth Exodus Missioner) 육성을 위해 힘을 모음과 동시에 비전실현을 위한 ‘7대 운동’에 매진키로 했다.

‘시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 장로교회’를 주제로 이날 행사는 1,2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다.

장로교의 날 행사에 앞서 열린 식전행사는 각 교단 기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예배 및 성찬식, 비전선포식 등으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이 자리는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고,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향후 70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우리 장로교회는

어둠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빛의 7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로교회는 한국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온 영적 동력이었다”면서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교단으로 서기를 바라며 감리교회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장로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은 실행위원장 황호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비전선언문 작성위원장 김성봉 목사와 예장 통합 부총회장 채영남 목사들이 ‘광복 70주년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낭독한 비전 선언문에서는 “장로교회는 새로운 70년의 통일 시대를 내다보며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한국사회·통일한국을 추구한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들과 연합해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출 결심으로 일어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만나는 몽골, 서울 ‘가족나담’

한국에서 나담축제의 즐거움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도록 개최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의 지원 하에 2001년 설립된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유해근 원장, 임은빈 이사장)이 주최하는 서울 ‘가족나담’ 축제가 지난 12일(주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재한몽골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재한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서울 나담’ ‘광나루 나담’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은 몽골인들이 고국에서 누렸던 나담축제의 즐거움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도록 개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몽골문화를 알린으로써 몽골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몽골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마두금 연주에 맞춘 전통노래 공연으로 개막식을 시작해 씨름, 팔씨름, 활쏘기, 사가이, 어린이 낙타타리기, 탁구, 노래자랑대회 등 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몽골전통 음식인 호흐르와 양고기 요리 허르혁을 시작하는 코너도 마련되었다.

나담 축제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몽골에서 가장 큰 국가적인 전통축제이다. 이 축제의 종합명칭은 ‘Erhin Gurvan Nadam’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게임 ‘이란 뜻으로 씨름, 경마, 그리고 활쏘기 경기를 가리킨다. 나담 축제는 나라 전체에서 가장 강한 씨름 선수, 가장 빠른 게 말 타는 사람,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용기와 힘을 시험하는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나담 축제는 유목민과 전사로서의 자질인 용기, 힘, 도전의식, 승마, 활쏘기 등을 테스트하기 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마패 여름에 축제로 펼쳐졌고, 그 중 가장 큰 축제는 7월 11일 울란바타르시에서 열렸다. 지금도 먼 곳에서부터 많은 유목민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또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울란바타르시로 몰려든다.

나담 축제 때 펼쳐지는 몽골씨름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곤 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광경이 펼쳐진다. 체구구별이 없고, 16명이 동시에 경기에 참여하므로 경기는 빠르게 진행된다. (02)446-4199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제7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대상

시상자 및 협회 회원전도 함께 가져



한국기독교서예협회(회장 홍덕선 목사)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기독교서예 대상 우수상에 장석항·박현욱이 선정됐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는 지난 2일(목) 오후4시 백악미술관에서 대상시상식 및 제7회 한국기독교서예협회 회원전을 갖고 우수상을 비롯한 특선·입선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시상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회장 홍덕선 장로 사회

로 정재규 목사가 출 35:34~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후 신세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시상식을 회장 홍덕선 장로의 개회인사, 감사 윤학상 집사의 경과보고, 윤영조 심사위원의 심사평, 시상, 수상자인 양희수·장석항·박현욱의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전시는 7월 8일까지 계속됐다.

통대협, 통일교 선학평화상 경계 당부

8월 28일 서울서 시상식 진행...기독교인들의 주의와 경계 필요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이하 통대협)의 사무총장인 이영선 목사는 최근 통일교가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8월 28일 서울에서 시상식을 진행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기독교인들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

지난 6월 8일 통일교의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에 출판한 소위 선학평화상의 올해 제 1회 수상자로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모디두구 비제이 굽타 박사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총상금 10억원인 이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노테 통 키리바시 공화국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 2050년 무렵 바다에 가리앉을 위기에 놓인 자국 키리바시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세계적 해결책의 모색을 주도하였다.

아노테 통 대통령은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기후의 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능동적 대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침 출근길 전도

지난주 안성행복한교회에서 세트전도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가족세트 전도집회가 열렸다. 전도현장의 생생한 동영상과 전도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오전에 도전받고 익힌 세트전도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생면부지의 처음 보는 대상자들이 이 전도팀에게 자기의 신앙 뿐 아니라 전 가족의 신앙까지도 알려 주었다.

둘째날 아침 7시부터 출근길 전도를 실시했다. 출근길 전도는 그동안의 상처와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이었다. 귀찮아 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도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상식과 정반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격 그 자체였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안정은 전도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터였다. 그런데 막연한 말들이 어느덧 전리처럼 받아들여져 전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우리 생각을 보이지 않게 지배해 온 것 같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행복한교회에서 실시한 아침 출근 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박영수 학장의 말씀을 들었다. 상상으로 예비된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만지 않는 자외의 접촉점은 잡지 않았다. 그런데 박영수 학장과 함께하는 세트전도는 아주 쉽게 접촉점을 갖고 관계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전도방법이다. 정말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열매 맺는 탁월한 전도방법이다.

이 같은 귀한 사역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널리 확산되어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사랑은 겉으로 표현하게 되어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전도로 나타내게 된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침출근길 전도를 나간다. 나날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세트전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 지고 성령충만해 지고 기도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심령부흥, 교회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 세트전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글/안성행복한교회 /사모 홍민정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목회자 사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오는 27일~30일 개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 공동주최하며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되는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오는 27일(월) ~ 30일(목) 서울 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개최된다.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으로 인해 한 달 정도 연기되어 진행되는 이번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는 목회자사모들이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혜를 얻게 하며 사역의 방법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받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하게 한다.

목회자사모신분이 주최하는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예배이다. 요즘에는 사모세미나에서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를 통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사모들을 치유하고, 변화하며, 새 힘과 능력을 준다. 둘째는 열정이다.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반복해서 진행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모



들은 그 열정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며 자유를 누리고 힘을 느린다고 간증하게 된다. 셋째는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강사이다.

이번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할 강사는 피종진 목사(한서울중앙교회), 이영환 목사(한밭제일교회), 설동주 목사(대전약수교회), 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임준식 목사(목양교회),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 등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해 목회자사모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고 새 힘과 비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총괄 진

행하는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사모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입니다. 사모님들은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 사모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목회자사모세미나는 오직 목회자사모님들만을 위한 회복과 축제의 현장입니다. 또한 이번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숙식일체 등록비 일체 무료로 진행됨으로 은혜 받은 마음만 준비하고 기도하며 참석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접수 및 문의 : 목회자사모신문

02)2207-8504~5 www.samonews.kr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해진다”

하이패밀리 부부세미나 ‘행가래’로 가정을 ‘행가래’!

사)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15일(2박 3일)까지 경기도 의왕에서 부부세미나 ‘행가래’를 진행한다.

하이패밀리의 부부세미나는 1993년 1차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23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 이번에 70번째를 맞는 하이패밀리의 대표적인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송길원, 김향숙 박사 부부는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밀바닥의 아픔에서부터 2004년 대한민국 대표부부로 선정되는 행복의 정상

에 오르기까지 본인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강의에 담아낸다. 기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 남녀의 차이를 통해 차이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상처 주는 대화가 아닌 배우자의 말에 공감해 주고 마음을 읽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를 배우고, 그 비밀을 깨우치면서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는 고백들을 한다. 지난 차수에 60대 부모님을 세미나에 모시고 왔던 따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미나 후 두 분

이 신혼으로 돌아갔냐?”며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를 주기도 했던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참석했던 분들의 소감들을 들어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내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세미나”, “은혜스럽고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세미나”,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히 알게 해준 세미나”, “2박 3일 만끽 웃으며, 힘이 있던 세미나” 등 각자의 감동은 달라도 모두가 행복으로 충전되는 세미나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진다.

(세미나 문의 : 02-2057-0033)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스문만으로 든든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III’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뽕 풀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공홍)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책 ‘대화 묵기’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건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과 악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첨: 접수순 100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강사 강 유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찬송선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 I 편저 • 프리즘문맥 성경 II 편저 • 프리즘문맥 키아즘 성경 III 편저

• 장호순 목사 •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① 공주시부 매주 수요일 09시 ~ 16시

② 전주지부 전주삼물교회 매주 월요일 09시~17시

③ 지부장 장호순 목사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④ 접수비 : 5,000원(식대)

⑤ 주 소 : 충남 공주시 소하동길 15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

주제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요 10:11)

강
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김인규 목사
증경총회장
은혜와평강교회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정부용 목사
전 부총회장
대림벨레교회



조원익 목사
부총회장
순복음추계교회



김양인 목사
광주지방회장
목양제일교회



이규호 목사
예하성 강원신학교 학장
순복음동산교회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 (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 관 신학발전위원회(위원장 차갑선 목사)
신학교리국(국장 황용연 목사)

대 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 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1-0263-4761-73 이경진)



차갑선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시흥순복음교회



황용연 목사
신학교리국 국장
은혜와평강교회



이경진 목사
신학교리국 차장
다사랑교회

♥ 첫째 날(8월 24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2:00~13:00	등 록	
13:00~14:00	개 회 예 배	찬양 : 총회신학교 시회 : 김병목 목사(총무) 기도 : 예하성광주신학교 교수 중 설교 : 진등용 목사(총회장)
14:10~15:40	다양성 목회 1 (가적 전도 목회)	시회 : 조선남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강사 : 김양인 목사(광주지방회장 담임)
15:50~17:50	특 별 강 의	시회 : 황용연 목사(신학교리국 국장) 강사 : 조용목 목사(증경총회장) 강의 후 사진 촬영
17:50~19:00	저 녁 식 사	
19:00~21:30	다양성 목회 2 (성령대방화-부흥목회)	찬양 : 예하성광주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신학교리국 차장) 기도 : 최창진 목사(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설교 : 총회신학교 학생회장 강사 : 임종달 목사(증경총회장 담임)
21:40~23:00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회 : 변원식 목사(영조교회 담임)
23:00~	취 침	

♥ 둘째 날(8월 25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07:00	자유로운 금식	
07:00~08:00	경 건 회	찬양 : 예하성광주신학교 시회 : 오세준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설교 : 이규호 목사(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08:00~08:30	산책 및 자유시간	
08:30~10:00	다양성 목회 3 (신교목회)	시회 : 임원순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강사 : 장무용 목사(대림벨레교회 담임)
10:10~11:40	다양성 목회 4 (환신목회)	시회 : 윤경현 목사(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강사 : 김인규 목사(증경총회장 담임)
11:4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폐 회 예 배	찬양 : 예하성광주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총회신학교 교수) 기도 : 예하성광주신학교 교수 중 강사 : 조원익 목사(부총회장) 헌금 :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생회장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황용연 목사
(010-9321-0675 : immeosm@hanmail.net)
신학교리국 차장 이경진 목사
(010-6355-5013 : love-kjsh@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님, 신학생)을 2015. 8. 10(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5. 8. 24(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자랑을 함께 합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장 목사 진등용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차갑선
총 무 목사 김병목 신 학교 리국 장 목사 황용연

지상학교

정형기 목사 // 대소우리교회

성품 속에 담긴 순종

(신 6:5-9)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훈련시켜 복을 주시려는데 있습니다.

성품훈련이 안된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애굽 바로 아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헛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는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켜 복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1.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훈련된 첫 번째 성품이 순종입니다.

좋은 성품은 나무와 같아서 하루 만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성품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빨리 만들어지지만 훈련도 늦어지면 따라서 성품도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직분을 세울 때에도 순종의 훈련이 안된 사람을 세우면 성도들과 매일 싸우고 분제만 만듭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도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는 무릇이 5년 혹은 10년 정도 되어야 직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들 네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라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1-2)

성품이 변하면 이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다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많지만 근심이 많아야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 28장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 순종은 구원의비결입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한사람이 불순종하므로 죄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왔습니다.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롬 5:12)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롬 5:19)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에 순종하므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 순종해야 사랑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첫마디가 엄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싫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요 14:2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드럽고 표정은 온화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들의 태도는 완고하고 표정은 딱딱하고 거역하는 태도이며 모가 나 있습니다. 모가 나면 날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땅 위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 순종은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지만 불순종의 사람은 도리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자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불순종의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그를 버리고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삼상 15:26)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미움 받고 버림받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죄는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빌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분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 사울이 예 버림 받았습니까?(마 12:32)

1) 불순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삼상 15:2-3)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마귀입니다. 남기면 그 마귀가 새끼를 쳐서 또 싸워야 하니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9월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거지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리라. 14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데 양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저 소리는 무엇이었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겼다고 하나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양을 수송할 때 깨끗이 잘라 버려지지 조금 남겨두면 그것이 재빨라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죄입니다.

2) 교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12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 29:22)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성품의 훈련을 받아 예수님을 닮고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설

방학-영적 재충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청소년들이 724.전후 전국적으로 한달 여 간에 걸친 여름방학을 일제히 맞이한다. 학기 기간중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아 줄수 없는 사정에 처한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방학이 되면 돌보아 줄 곳을 잃게되어 걱정거리가 되는 기간이기도하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방학이 되면 특별히 돌보아 오던(케어) 어린이들 걱정이 앞서 방학휴식이 아니라 아이들 걱정에 마음고생을 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건재한 학생들은 방학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요즘은 정보통신 ‘스마트’ 시대다. 지금 학부모들이 초중고교에 다니던 당시를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세상이다. 하루, 아니 한 시간만 뒤 처져도 우열이 뒤바뀌는 학업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만 방학 기간 활용을 맡겨 놓기보다 학부모들이 각종 방학 학습 프로그램들을 찾아 안내해 주고, 주도면밀한 방학 생활 가이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시대다.

각 시도 교육위에서 실시하는 방학 학습 프로그램도

많거니와 과학관, 미술관, 서울을 비롯한 각급 지방 행정기관, 각종 보습 학원들에서도 넘쳐나는 체험학습, 영어학습, 봉사활동 참여 등 유익한 방학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본다. 가령 국립과학관 학원만 보아도 “여름방학특강 창의체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7.28-8.14기간 실시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이미 7.8자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잘 찾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방학을 맞아 긴장이 풀려 맘껏 놀아볼 생각이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님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아이들을 위해 정성들이는 마음으로 방학프로그램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이들 방학이 알차도록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끌어줌이 바람직하다. 특히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명심하여 방학 중 교회학교 일정보다 미리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방학생활이 학업보충은 물론 영적 재충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기도가 필요하다.

말과 전시성 행사보다는 마음을 찢어야

이달 초 “회초리기도대체회”에는 7순이 넘는 한국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자기 자신부터 회개의 회초리를 맞겠다는 결의를 하고 온 성도들을 향해 절실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반성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7.6. 서울 장충단 모 교회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등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한국 개신교회가 불교, 천주교 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사회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개탄하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통렬히 자아비판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요 빛”이라고 못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는 커녕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꾸로된 꼴로 전락하여 수치스런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공동 책임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평신도들 보다는 한국교회 지도급 인사들의 처신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근래에만 해도 잇그제까지 교계 지도급 인사 행세를 하던 의류매커 S그룹 회장도 장로가 거액 세금포탈 대출사범으로 구속되어 오명을 안겨 주었고 대기업인 과 정치인 행세를 해오다 억울하다면서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 로비자금을 주었다고 폭로하고는 자살극을 벌인 K기업 회장 S모씨도 교회 장로로 알려져 교회명신을 시켰으며 천안대 규모의 국가병위무기거래 부정사건에 모 교회 L모 장로라는 인사가 주범으로 구속되어 온 나라를 어지럽혀 온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 아래 놓인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은 어떤 행동부터 먼저 보아야 할까? 무엇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저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처하는 모습을 갖추는 일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피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이렇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에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 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K 코리아에프엔디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

- 여목회자 리더십 훈련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 안에서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리더십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를 주제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일 시 | 2015년 8월 24일(월) ~ 25일(화)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원

| 등록비 | 1인당 10,000원(계좌 : 농협 356-1047-1351-03 탁정신)

| 접 수 | 2015. 8. 24(월) 10:00 ~ 10:50(예배 10분 전까지)

| 시 상 | 찬송경연대회, 5분 설교대회, 여교역자(M.V.P)
지부별(지방회별) 최다 출석상

| 문 의 |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H.P. 010-5313-3379)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H.P. 010-8000-5841)

- ◎ 각 지부장은 숙식준비관계로 각 지부별(지방회별) 참석인원을 2015. 8. 10.(월)까지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010-8000-5841)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대회 참가자는 2015년 8월 1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표

♡ 첫째 날(8월 24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0:00~10:50	등 록	
11:00~11:3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전원감리교회)
11:30~12:20	개 회 예 배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탁정신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동양장로교회, 바리톤성악가) 설 교 : 진동용 목사(총회장) 한금기도 : 이경자 목사 오리엔테이션 : 김선경 목사
12:30~14:00	점 심 식 사	
14:00~14:3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4:30~16:00	특 강 1	주 제 : 리더십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바울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 강 사 : 조용목 목사(정책위원장) (강의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
16:00~17:00	레 크 레 이 션	‘신나게! 즐겁게! 하나되기’
17:00~18:30	저 녍 식 사	
18:30~19:0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9:00~20:00	지부별 찬송경연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20:00~20:30	간 식	
20:30~22:00	성 령 대 망 회	사 회 : 김바울 목사 기 도 : 최영희 목사 특 송 : 이화숙 목사(전주지부, 순복음우리교회) 강 사 : 탁정신 목사

♡ 둘째 날(8월 25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06:30	아 침 기 도 회	기도 : 한순남 목사 설교 : 김선경 목사
07:00~08:00	아 침 식 사	
08:00~08:30	찬 양	인도 : 김상우 전도사
08:30~10:30	특 강 2	주제 : ‘이슬람 바로 알자’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김효신 목사 새내기 특송 : 박경숙, 서경희, 최갑식, 한원화, 이화숙 목사 강 사 : 김하나 선교사
10:30~12:30	5분 설교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12:30~13:30	점 심 식 사	
13:30~14:00	찬 양	인도 : 김상우 전도사
14:00~15:30	특 강 3	주제 : ‘성령충만한 여목회자의 자성과 인생’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순자 목사 강 사 : 김병훈 교수
15:30~16:20	폐 회 예 배	사 회 : 함정임 목사 기 도 : 명영란 목사 설 교 : 정부용 목사 한금기도 : 조영란 목사
16:20~16:30	시 상 식	1. 찬송경연대회 2. 5분 설교대회 3. 여교역자(M.V.P) 4. 지부별(지방회) 최다 출석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김병목 목사
총무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멜로교회 담임

대회준비위원장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대회총진행



김선경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천안세계로교회 담임

외부강사



김하나 선교사
중동아시아국가 선교사
부산외대 교수

외부강사



김병훈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
목회상담학 박사

대 회 준 비 위 원

- 행사부장 김바울 목사 (경기지방회, 순복음진리교회)
- 예배부장 김효신 목사 (경기남지방회, 순복음찬양교회)
- 친교부장 최영희 목사 (안산시흥지방회, 예준순복음교회)
- 경조부장 김순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회복의교회)
- 홍보부장 명영란 목사 (경기북지방회, 향기로운교회)
- 정보통신부장 함정임 목사 (경기북지방회, 새소망순복음교회)
- 복지부장 이경자 목사 (충남지방회, 순복음경동교회)
- 봉사부장 한순남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반송교회)
-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 (일산지방회, 일산멜로교회)
- 선교부장 조은주 목사 (광주지방회, 순복음합중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교단 총회, 각 지방회